

# 탄핵정국에 최악의 항공기 참사 ‘참담한 연말’



전남소방대원 등이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시민들이 지난 21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탑승객 179명 사망

2024년 한 해를 3일 남겨둔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최악의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다. 오전 9시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착륙을 시도하다 외벽을 정면충돌한 뒤 폭발해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고 단 2명 만이 생존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

다. 탑승객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한 179명이 한국인이었다. 탑승객 대부분은 광주전남 지역민이었으며, 연말 여행에 나선 가족 단위 탑승객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직전 ‘조류 충돌 주의’ 관제 교신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 2 ‘12·3계엄’ 윤 탄핵안 가결... ‘오월정신’ 재조명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45년간의 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로 150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14일 재표결에서는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계엄 사태

과정에서도 오월 정신은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연일 거리로 뛰어나와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민들은 매일 밤 5·18민주광장에 모여 내란죄 처벌과 윤 대통령 퇴진에 목소리를 모았다. 집회 과정에서 ‘오월 대동세상’을 재현, 시민 의식도 빛났다.



## 3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2024년은 대한민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해가 됐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거머쥔 노벨상이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자연스럽게 오월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단숨에 각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한때 품귀현상이 불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문인들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소년이 온다 북카페 조성 등을 통한 인문학 활성화를 추진했고 동구가 진행하고 있는 ‘책 읽는 동구’ 사업도 탄력을 받는 등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4 KIA 타이거즈, 7년 만의 통합 우승

2024년 KIA 타이거즈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스프링 캠프 도중 소방수 역할이 된 이범호 제11대 감독은 빠르게 팀을 수습하며 ‘초보 사령탑’에서 ‘우승 사령탑’으로 거듭났다.

펜트레이스에서 공수 양면을 압도한 KIA 타이거즈는 87승 2무 55패(승률 0.613)로 일곱 경기를 남겨놓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어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플레이오프를 거친 정규시즌 2위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4승 1패를 거두며 통합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KIA는 한국시리즈 전승의 전설을 열두 차례로 연장하는 위업을 이뤘다.



## 5 광주·전남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돌풍

‘정권심판론’ 태풍이 제22대 총선을 휩쓸면서 광주·전남은 이번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8석 전석을 석권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적 교차투표가 현실로 나타나 민주당의 아성이 흔들렸다.

광주와 전남의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66.7%에 달했다. 전체 18명 중 11명이 조선이다. 비례대표 투표율의 경우 광주는 조국혁신당 47.72%, 더불어민주당 연합 36.26%로 조국혁신당이 11.46%포인트 앞섰다.

전남도 조국혁신당이 43.97%로 39.8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4.09%포인트 높았다.



## 6 창설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위상 제고

광주비엔날레는 3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앞두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미술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재차 확인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70만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국악 ‘판소리’를 주제로 동시대 담론을 내세우며 비엔날레의 가치를 계승·확장했다. 기후 변화, 경제 위기, 이주 문제 등의 갈등을 미술로 시각화해 풀어내며 호평을 끌어냈다.

특히 22개 국가관·9개 기관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파빌리온을 광주 전역에 선보여 더 많은 관람객이 다층적인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 7 광주·전남 태극전사, 세계에 올린 승전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소속 또는 출신 태극전사들은 세계에 승전보를 올렸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여섯 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밤낮없이 지역민들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이었다.

남수현(순천시청)은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광역시청)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10연패를 완성한 뒤 여자 개인전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안세영(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빛 스매시를 날리며 28년 만의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정나은(화순군청)은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김원호(삼성생명)와 은메달을 합작했다.



## 8 목포대·순천대 통합...전남 국립의대 탄력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1월 15일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최대 난제였던 양대학 통합이 합의에 이르면서 통합의대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료 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기조에 맞춰 국립대 간 통합에 합의하면서 통합의대 신설의 필요충분 조건까지 갖춰지게 됐다.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국 최악의 의료사각 해소 차원에서 2026년 개교와 첫 신입생 배정으로 30여 년 이어져온 오랜 숙원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통합 합의 후속 조치에도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9 역대급 폭염...온열질환자 등 피해 속출

2024년 광주·전남지역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6-8월) 평균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44일 연속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극심한 더위는 초가을까지 이어져 9월 평균기온이 26.4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폭염은 온열질환자 급증과 농축산 피해로도 이어졌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에서 70명, 전남에서 407명 등 총 477명(사망자 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다 기록(중전 2018년 440명)을 갈아치웠다.



## 10 광주FC,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2024년, 광주FC 특유의 주도권 축구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까지 집어삼켰다. 지난해 K리그1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아시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한 해였다.

부전승 행운으로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직행한 광주FC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이상 일본), 조호르 다룰 탁짐 FC(말레이시아)를 연파하며 개막 3연승을 달렸다.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 4승 1무 1패(승점 13·득실 +6)를 기록, 동아시아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